

# 구례, 지리산남악제 · 군민의 날 행사 개최

## 오는 18~20일 '천년의 역사 속으로 떠나는 여행' 주제

### 군민 다함께 즐기고 화합하는 31종목 다채로운 행사 개최

구례군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천년의 역사 속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남악사, 화엄사 시설지구,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제80회 지리산남악제 및 제43회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남악제와 시가행진, 군민의 날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공연, 전시·체험, 경연 등 4마당 31종목의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오는 18일에는 남악 서에 백일장을 시작으로 저녁 7시 서시천 체육공원 야외무대에서 군민 노래자랑이 열린다. 예선전을 거쳐 선발된 12명의 본선 진출자의 뜨거운 경연이 펼쳐진다.

아울러, 제33회 전국 정가 시조경

창대회에서는 전국의 시조 명창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한다.

19일 오전 10시에는 천 년의 역사 동안 국태민안과 시화연풍을 기원한 남악제제가 남악사에서 봉행되고, 이후 장죽전 녹차 시배지에서 현공다례가 진행된다.

화엄사 시설지구에서는 문화예술 공연, 숨어있는 장사를 찾아낼 길거리 (조동대항) 씨름대회, 읍면 (조동대항) 풋볼이, 읍면 농악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며, 우리 차 시음회, 전통 떡 만들기, 기념품 만들기 체험, 한지공예 전시, 한국사진작가 협회 작품 전시회 등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섬진아트홀에서는 오후 4시부터 북한의 독특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백두한라예술단의 공연이 열리며,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는 한국미술협회 구례지부 회원들의 주옥같은 작품이 전시된다.

20일에는 군청 광장에서 구례공설운동장까지 시가행진이 진행되고, 이어서 구례공설운동장에서 읍·면별 입장식과 축구, 게이트볼, 파크골프 등 각종 체육 경기와 한국 시범 경기가 펼쳐진다.

이중석 지리산남악제 및 군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장은 "올해는 더욱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리산남악제와 군민의 날 행사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의미 깊은 축제인 만큼 행사가 내실 있고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오광범 기자

# 순천, 위기가구 돌봄 '순천 살핌 앱' 운영

## 휴대전화 지정시간 미 사용시 자동 안전 확인 문자 서비스

순천시는 1인 가구 및 취약계층의 위기상황 예방을 위해 '순천 살핌 앱'을 도입하고 지난 5일부터 본격 운영에 나섰다 밝혔다.

'순천 살핌 앱'은 지정된 시간(최소 12시간 이상 휴대전화 사용이 없을 때 사전 등록된 다수의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안전 확인 문자가 발송되는 서비스이다.

특히,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앱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원스토어에서 '순천 살핌 앱'을 검색해 설치

한 뒤 보호자 연락처를 등록하면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독사는 노인층뿐 아니라 차매, 중증질환, 장애 등의 다양한 위기 요인으로 인해 장년층부터 청년층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순천 살핌 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가족과 이웃의 안녕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 광양, 무료 정장 대여 '청년 감동 날개' 큰 호응

## 광양청년꿈터서 운영... 18~45세 구직활동 지원

광양시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직활동 등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장 및 소품 등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청년 감동 날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청년 감동 날개' 운영을 시작한 이후로 매달 20여 명의 청년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호응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 감동 날개'는 지역 내 거주하는 18세부터 45세 청년이면 누구나 대여가 가능하다. 대여 절차는 광양청년꿈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 후 신분증, 보증금 등을 지참해 광양청년꿈터로 방문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토·일요

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대여 물품은 ▲남성의 경우 재킷, 바지, 셔츠, 벨트, 넥타이이고 ▲여성의 경우 재킷, 치마, 바지, 블라우스이며 차수별로 다양하게 구비돼 있다.

정장을 대여한 청년은 "면접 등 1회성을 위한 정장 구입에 많은 부담을 느꼈는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좋았다"며 "셔츠, 넥타이 등 소품도 함께 대여할 수 있어 청년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광양청년꿈터는 청년 정장 무료 대여사업 외에도 청년드림플러스, 청년꿈터리스트, 청년특강, 청년정책협의체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을 오는 12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광양=조순익 기자

# 광양, 지방세 세무조사

## 5월부터 본격 실시

광양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2024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했다. 대상 법인은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고 최근 5년간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인 3백만 원 이상의 세액을 부과·감면받은 법인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된 80개 법인이다.

시는 성실납세자 및 유망중소기업 등 32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는 법인의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해 실시하고, 기업의 조사 부담을 고려해 세무조사 방법과 기간 등 법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업 경영에 불이익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누락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반복되는 주요 추정 사항에 대한 안내 책자 등을 제작하고 홍보해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광양시는 정기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지방세 탈루 은닉 법인에 대해서는 기획 세무조사와 전수조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

## 24주년 개장기념일 행사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은 올해 개장 24주년을 맞이하는 '도매시장의 날'을 기념하여 중도매인협의회·입주법인 3사(순천원예농협, 순천남도청과(주), 남일청과(주))·순천시가 공동주관하는 고객감사 이벤트 및 지역사랑 농산물 기부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출하자와 유통종사자간 만남의 장을 마련해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기부활동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오는 18일 당일 도매시장을 방문해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나 출하자에게는 영수증 지참시 농산물을 포함한 1만원 상당 기념 사은품을 선착순 지급한다.

또한, 중도매인협의회·입주법인 3사는 40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 농산물을 승주읍, 주안면, 송광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 기부할 예정이다.

# '고흥우주선 철도건설 위한 토론회' 내일 개최

## 서울과학기술대학 공동 주최...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 별교역~고흥읍~녹동항 연결... 다각적 교통인프라 확대

고흥군은 별교역~고흥읍~녹동항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12일 오후 2시 30분 고흥문화회관(김연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철도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 및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흥군과 서울과학기술대학에서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는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 및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서울과학기술대학 김시근 교수가

'고흥우주선 철도 사전타당성 및 발전전략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발표 후에는 폭포대 신순호 교수를 좌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군은 접근성 개선을 위해 광역도로망과 철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고흥우주선 철도 사전타당성 및 발전전략 토론회'를 시작으로 철도망 구축을 위해 본격적으

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철도망 구축은 2030 고령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아주 중요한 기반 산업이다. 이를 통해 접근성이 개선되면 지역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우리군에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철도를 구축하는데 다양한 정책 방향과 발전전략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고흥우주선 철도건설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본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전라남도 등과 연계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신용원 기자

# 보성, 자주독립 헌신한 서재필 추모 '송재문화제' 성료

보성군은 지난 8일 독립신문 창간과 독립협회 창립 등 활동으로 조국의 자주독립에 평생을 바친 송재 서재필 선생을 기리는 제11회 송재문화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1회 송재문화제'는 송재 서재필 기념사업회(이사장 김중재)와 심헌문화재단(이사장 박지영) 주관으로 열렸으며 독립신문 창간과 독립협회 창립 등 조국의 자주독립에 평생을 바친 보성군 문턱면 출신인 송재 서재필 선생 추모를 위해 2014년부터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보성 서재필기념공원에서 열렸으며, 서재필 선생 탄생 160주년 기념 및 서거 73주기 추모기도, 봉강사 각안주지스님의 추모독경, 추모헌시 낭송에 박연정, 김남용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의 추모사, 김철우 보성군수 추모사 순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행사는 지난 1994년 4월 8일 미국 필라델피아 근교 남광당에 안치돼 있던 선생의 유해가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된 날을 기념해 송재서재필기념사업회와 심헌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서재필 선생의 숭고한 애국 애족 정신을 기리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공연을 시작으로, 현공다례, 현화 및 분향 순서로 행사가 진행됐다.

남광교회 윤대원목사님의 회주모기도, 봉강사 각안주지스님의 추모독경, 추모헌시 낭송에 박연정, 김남용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의 추모사, 김철우 보성군수 추모사 순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행사는 지난 1994년 4월 8일 미국 필라델피아 근교 남광당에 안치돼 있던 선생의 유해가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된 날을 기념해 송재서재필기념사업회와 심헌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서재필 선생의 숭고한 애국 애족 정신을 기리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보성=장국모 기자

# 광양, 1회용품 줄이기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실현

## 지역 내 기업체 동참 유도·캠페인 등 실시

광양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선순환에 기여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식품점객업(후계·일반음식점, 제과점 등)과 종합소매업(편의점, 슈퍼마켓 등), 도소매업, 대규모점포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1회용 컵, 비닐쓰레기봉 등의 사용을 규제하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또한 ▲상공회의소, 포스코 등 지역 내 기업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동참 유도 ▲플라스틱 제로 '광양' 운동본부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실시 ▲관내 식품점객업소 등에 우리 동네 '1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 참여 요청 등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의식업중앙회 광양지부를 통한 1회용품 사용규제 업주 개별 유선 홍보, 지역 내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지속해서 펼칠 예정이다.

또한, 연간 20본의 1회용품 감축을 목표로 공공기관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식사 시 대화용기를 공급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계

획이다. 특히, 시는 올해 제23회 광양대화 축제에서 축제장 내 음식점 등에 대화용기를 공급하고, 세척 후 재공급해 1회용품 없는 탄소중립 실천 친환경 축제로 호평을 받았다.

축제장 음식점 모집 공고에서부터 '음식점 운영 시 대화용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10개 음식 부스에 접시, 면기, 수저/젓가락, 컵 등 대화용기를 공급해 1회용품 없이 음식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매식 하이볼, 카페 부스 등에도 대화용 컵을 제공했다.

식사 후 사용한 대화용기는 별도로 마련된 대화용기 부스에 종류별로 반납하도록 안내했으며, 반납된 용기는 세척장으로 운반해 대화용기 세척 기준을 준수하여 세척된 후 재공급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 곡성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선정

## 지역 내 기업 3곳, 최대 5000만원 지원

곡성군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진하는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기업 3곳이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타 시·도 청년들에게 지역자원 활용조사와, 맞춤형 컨설팅, 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청년의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지원사업은 지역자원 조사 활동을 위해 최대 180만원 지원하며, 1차 사업화과정 지원으로 최대 2,000만원 지원, 2차 고도화 지원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관내 3곳의 기업은, 곡성군의 특산품인 토란을 활용해 초콜릿을 제작·판매하는 김재천 씨의 '초코라니', 전라남도지역의 쌀을 활용하여 만든 지역 특산품인 주신창업 씨의 '두드부루어리', 귀농 귀촌인을 위한 양심 집짓기 최영호 씨의 '꿈꾸는 영호씨'가 선정됐다.

군 관계자는 "청년 창업가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자금, 멘토링,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곡성=홍정백 기자

# 구례 5일시장서 '오맥축제' 오는 13일 개최

구례군은 13일 구례 5일시장 일원에서 '2024 구례에서 즐기자 제2회 오맥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례 오맥축제는 구례읍 중심지가 지형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축제지원 프로그램이다.

오맥축제는 지역 경제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민과 5일시장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개발된 맥주 축제로 2023년에 처음 열렸다.

올해 축제는 카스와 협업을 통해 참여자에게 신선하고 시원한 생맥주 4잔을 2,000원에 제공한다. 참여자

는 5일시장 내 청년점포 야시장을 이용해 안주 또한 가성비 있게 즐길 수 있다.

축제 당일 오전 부대행사로는 체험 관광 연계 프로그램 등이 준비됐고, 오후에는 플라마켓과 버스킹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허명진 5일시장 상인회장은 "축제 참여자들이 전통 시장의 추억과 파스칼을 느낄 수 있도록 푸짐한 먹거리를 가지고 다양한 즐길 거리를 준비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오광범 기자

# 순천시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 AI 교육 실시

## 디지털 기초 학습·코딩 교육... 미래 인재 성장 기대

순천시 드림스타트가 취약계층 아동의 AI 문해력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초학습 및 코딩 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5년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대비해 기초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디지털 환경에 쉽게 적응하도록 마련된 것으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스펀트리 프로그램

가입 및 인공지능 이해 △AI 게임 만들기 △비디오 감지 기술 △스프레드 코딩 △이미지 분류 △VR 체험 등 아동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에서는 AI 기초교육을 마친 후 재능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배우고 싶은 아동에게는 심화 교육을 연계하여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순천=조순익 기자